

중국 인민은행, 위안화 거래 관련 조치 변경

조고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연구 중국팀 연구원

주요내용

- 중국 인민은행은 2017년 9월 11일 △선물거래예치금 비율 하향 조정 △역외 금융기관 지급준비금 폐지를 시행하기로 함.
- 해당 조치는 최근 위안화 절상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2015~16년 과도한 위안화 약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던 제도를 조정하여 위안화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선물거래예치금 및 역외 금융기관 지급준비금 제도의 조정으로 역외 금융기관 및 기업의 거래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안화 환율이 안정됨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의 자본유출 규제가 추가적으로 완화될 수 있음.

1. 이슈 현황

- 중국 인민은행은 2017년 9월 11일 △선물거래예치금 비율 하향 조정 △역외 금융기관 지급준비금 폐지를 시행하기로 함.¹⁾
 - 선물거래예치금 제도는 금융기관의 역내 위안화 매도·달러화 매입 선물거래 시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을 인민은행에 별도로 예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로 예치금 비율이 20%에서 0%로 조정됨.²⁾
 - 동 제도는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이 높았던 2015년 실수요에 따르지 않은 비이성적 외환 선물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15년 10월에는 역내 금융기관에 대해, '16년 8월에는 역외 금융기관에 대해 적용됨.
 - 역외 금융기관 지급준비금 제도는 역외 금융기관의 역내 위안화 예금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래 대형은행과 동일한 17.5% 기준율을 요구하였으나 이번 문건 발표로 기준율이 폐지됨.³⁾

1) '역내'는 중국 본토, '역외'는 중국 본토 이외 지역을 의미함.

2) 《中国人民银行关于调整外汇风险准备金的通知(중국인민은행의 선물거래예치금 조정에 관한 통지)》(银发【2017】207号)

2. 원인과 분석

■ 위 조치는 최근 위안화 절상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2015~16년 과도한 위안화 약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던 제도를 조정하여 위안화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2015~16년 절하 기조가 지속되다가 '17년 들어 절상으로 전환된 후 강세를 지속하였으며, 중국 인민은행의 9월 11일 문건 발표 직후 절하 기조로 즉각 전환됨.
 -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17년 1월 4일 6.953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소폭 등락을 반복하다가 5월 부터 9월 초까지 감소세를 지속, 9월 11일에는 6.500을 기록함('17년 1월 최고치 대비 약 7% 평가절상).
 - 반면, 중국 인민은행의 문건 발표 직후인 9월 12일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6.528로 전일 대비 0.43% 절하되었으며, 이후 9월 28일(6.629)까지 총 1.98% 절하됨.

표 1. 최근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 절상/절하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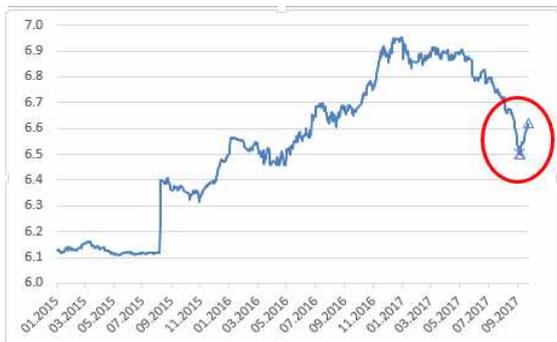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년	-0.89	+0.10	+1.28	+0.04	-1.86	-0.79	-0.30	-0.60	+0.19	-1.29	-1.81	-0.73
17년	+1.13	-0.24	-0.35	+0.09	+0.43	+1.30	+0.68	+1.89				

자료원: CEIC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주: 절상은 (+), 절하는 (-)로 표시

그림 1. 최근 위안화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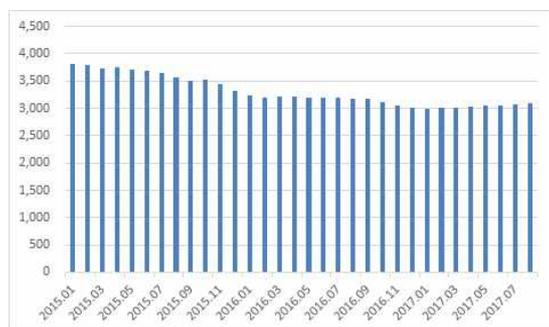
(단위: CNY/USD)



자료원: CEIC

그림 2. 중국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원: CEIC

3) 《中国人民银行关于调整境外人民币业务参加行在境内代理行存放存款准备金政策的通知(역외 위안화 업무 참여은행의 역내 대리는 행 위안화 예금에 대한 준비금 조정에 관한 통지)》(银发【2017】206号)

3. 전망과 시사점

- 선물거래예치금 및 역외 금융기관 지급준비금 제도의 조정으로 역외 금융기관 및 기업의 거래비용이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안화 환율이 안정됨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의 자본유출 규제가 추가적으로 완화될 수 있음.
- 중국 인민은행의 이번 조치로 인해 위안화 매도·달러화 매입 비용이 낮아져 역외 금융기관 및 기업의 거래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위안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대중국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
- 향후 위안화 환율이 안정됨에 따라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중국 당국이 취한 여타 규제 조치들도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중국이 달러화를 대량 매입하는 방식으로 위안화 절상폭을 조절하기보다는 이번과 같이 위안화 거래에 관한 조치를 취한 것은 과거와 차별화되는 것으로 평가
 -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고 유지를 위해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위안화 거래에 대한 조치를 통해 위안화 환율이 정책 구간 내에 있도록 할 것이 예상됨. **CSF**

참고문헌

- 화타이증권
- 증신건설증권
- 증권시보망
- 제일재경일보

💡 알립니다

- CSF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릅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